

전남도, 우수 농수산물식품 미주 시장 진출 '순항'

美 H마트 판촉행사 물품 수출 상차 김·홍어·한과 등 62종 32만불 규모 LA 공군기지 전용매장 식품관 운영 김스낵 등 4개 업체 10개 품목 판매

전남도가 지역 농수산물식품의 미주 시장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진행될 '전남도-미국 H마트 연계 판촉행사'를 위한 물품 수출 상차식을 지난 19일 개최했다.

이날 선적한 물품은 김, 홍어, 미역, 젓갈류 등 수산물과, 한과, 유자차, 버섯류 등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전남에서 생산한 62종의 농수산물식품이다. 규모는 35만

달러에 달하며 이 물품들은 미국 동부에 9월 중순 도착할 예정이다.

판촉행사가 진행될 H마트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지에 120여 매장을 운영하는 북미 최대 인터넷서점 슈퍼마켓이다. H마트는 지난 1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뉴욕 순방 시 이뤄진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10월18일부터 30일까지 '전남도-미국 H마트 연계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전남도는 이번 H마트 연계 판촉행사를 통해 이미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전남산 김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수산물식품으로 수출을 확대해 농수산물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미국은 일본에 이은 전남의 2위 농수산물 수출국으로, 올해 상반기 김, 음료,

전통장류, 전복 등 65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8%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또 전남도는 미국 주류시장 진출과 미군납 진입 유도를 위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공군기지 한국 소비재 전용매장인 '숍 코리아(SHOP KOREA)'에서 전남 농수산물식품 판매 식품관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군기지 육·공군복지서비스(AAFES) 건물 1층에 개설된숍 코리아에서 별도 식품관을 통해 오징어튀김스낵, 유기농 유자주스, 김스낵, 화장품 등 4개 업체 10개 품목을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선보인다.

육·공군복지서비스 건물은 미군과, 미

군 관계자, 그 가족이 이용가능한 종합몰로 현재 스타벅스, 푸드코트 등 10여 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까다롭기로 알려진 미군기지 내매장 허가과정, 판매 승인, 인력 운영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당 참가비 전액인 10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참여기업 제품의 수출 실적이 발생하도록 상품 홍보와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이번 입점을 계기로 미국 내 대형 유통망 진입이나 공공조달 사업 참여를 위한 이력을 쌓고, 소비자 선호도와 판매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미군 부대에 정식 군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 세계적 한식(K푸드) 열풍으로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올해 6월 현재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5% 증가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10월 미국 62개 H마트에서 펼쳐지는 판촉행사와 로스앤젤레스 공군기지 '숍 코리아' 등을 미국인의 식탁에 더 많은 전남 농수산물식품이 오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농수산물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판촉·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지원을 통해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건축상에 '보이지 진월' 등 6곳 선정

내달 3~14일 시청서 전시

광주시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는 '2024년 제28회 광주시건축상' 수상작 6개 작품을 선정, 발표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건축상은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우수한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와 시공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건축상 최우수작에는 △비주거부문 '보이지 진월' △주거부문 '낮은 공방과 높은 주방의 집'이 선정됐다.

우수작에는 △공공부문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비주거부문 '카페 루브시' △주거부문 '일곡 하얀집'과 '장덕동 1231'이 각각 뽑혔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지회는 최근 5년 이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6월19일부터 7월18일까지 '제28회 광주광역시건축상'을 공모했으며, 총 14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건축사, 대학교수 등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8인의 심사위원회가 1차 판넬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총 6개 작품을 확정했다.

비주거부문 최우수작에 선정된 남구 진월동 '보이지 진월'은 푸른길과 인접한 대지의 특성을 활용하고 도보 유동을 통한 접근성을 고려한 열린 배치와 건물 내부 공간에 있는 상업시설들을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 상호 작용한 점이 인상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주거부문 최우수작으로 뽑힌 동구 운림동 '낮은 공방과 높은 주방의 집'은 대지가 협소하지만 젊은 건축가의 도전과 고민이 작품에 녹아들어 다양한 높이의 시선을 제공하는 설계기법이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 공공부문 우수작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주민들에게도 친근한 공간감을 창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시건축상 선정작품 건물에는 동판이 부착되며, 건축설계를 한 건축사에게는 광주광역시상과 상금, 시공자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작품은 오는 9월3일부터 14일까지 시청에서 열리는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전시되며, 건축단체연합회 누리집(www.gfauc.gjifika.org)에도 온라인 전시된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의회 역대 의장과 의정간담회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20일 광주시의회 시민홀에서 역대 광주시의회 의장들을 초청, 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전직 의장들의 의정활동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 '자율주행차 센서 인증표준' 대응방안 모색

국회세미나...시험평가 시설 필요 2029년까지 인증센터 기반 구축

광주시가 자율주행차 인지(센서)의 국내·외 인증표준에 대비한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광주시는 20일 국회 회의실에서 '자율차 인지부품 인증표준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국회 정진욱의원실, 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국회 산업통상벤처위원회 정진욱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최태조 광주시미래차산업과장, 김종은 국가기술표준원 과장,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LG이노텍·에스오에스랩 등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1월 제정된 '미래자동차특별법'은 미래자동차 공공망 관리를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래자동차 부품 인증제도를 마련해 부품의 표준화를 제도화했다.

광주시는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표준 제정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미래차 인지(센서) 시장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시험평가 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특히 광주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북구 첨단산업단지내 '미래자동차 인지부품의 표준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는 미래차 인지(센서) 국내의 표준화에 따라 광주의 자율차 부품 인지(센서)와 연계해 인증에 필요한 표준대응을 위한 실차기반 성능평가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이사는 '미래차 인지센서 기술 및 산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인지(센서)는 90%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서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자율주행차 센서 신뢰성/내구평가 동향'에서 인지(센서)의 신뢰성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높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주 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미래차 인지부품 표준화 현황'을 통해 "자율주행차 센서는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해 국내외적으로 표준이 진행되고 있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증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해양수산과학관, '매부리바다거북' 선봬

화·금 바다거북 생태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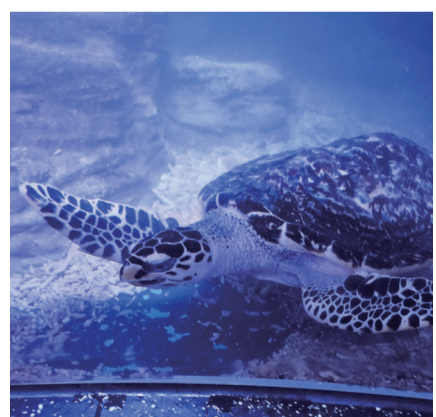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여수 돌산읍 해양수산과학관에서 새 식구로 맞이한 해양보호생물 매부리바다거북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해양수산과학원은 매주 화·금요일 오후 3시 바다거북 생태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환경오염과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새 식구가 된 매부리바다거북은 여수 아쿠아플라넷과 상호 협약에 의해 지난 6월 이관 받은 개체(갑장 48cm)로, 주둥이가 매의 부리를 닮았다는 점에서 이름 붙여졌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 7종이 있으며, 수명은 약 100년으로 긴 세월을 살아가는 만큼 장수를 상징하는데다 생김새 또한 친근해 호감을 사는 생물이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산란지 파괴,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로 개체 수가 감소됨에 따라 바다거북 전 종이 국제적멸종위기종



으로 분류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수산과학원은 멸종위기종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서식지보전기관'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신규 등록했다. 올해 6월에는 정치망에 혼획된 푸른바다거북 1마리를 구조·치료 중이며, 바다거북 보호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학교밖청소년 대학입시박람회' 연다

광주시는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오는 28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학교밖 청소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입시설명회는 광주·전남지역 17개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참여하는 '대학입시박람회', '검정고시로 대학가는 방법' 특강, 맞춤형 1:1 입시상담 등이 진행된다.

특히 대학입시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광주교대, 광주대, 광주여대, 기독간호대, 남부대, 동강대, 보건대, 서영대, 송원대, 전남대, 조선간호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한국폴리텍대학(광주), 호남대, 국립목포해양대, 국립순천대 등이 참여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학제도를 안내한다.

이번 입시설명회 사전 신청은 23일까지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누리집(www.flyyouth.or.kr-알려요)을 통해 가능하다.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료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www.flyyout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시설명회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광주시 센터 및 주소지 관할 자치구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